

외국인유학생 16만명시대... 중도탈락·불법체류 '골머리'

대학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활 '마구잡이식 선발' 중도탈락 늘어 학업포기 후 각종 범죄 노출 우려

10년 연속 반값등록금 정책 등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의 이탈과 불법체류·취업 문제가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학은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나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등록금 납부를 위한 '마구잡이식' 선발을 하고 있다. 선발이 부실하니 유학 중도 탈락자들도 늘고 있으며 학업 포기 이후 불법 체류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10만2690명, 한국어 연수 5만7971명, 외국어 연수 10명 등 모두 16만6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설정한 2023년 유학생 20만명 유치 계획은 무리 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학생이 늘면서 체류조건을 어기는 불법체류 건수도 늘어났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 규모는 지난 2016년 5652명에서 2017년 8248명으로 45.9% 증가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35.5% 늘어난 1만1176명에 달한다.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두 부류다. 처음부터 학업보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온 유학생과 유학생할 중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시작으로 돈을 쫓다가 이탈하는 경우다.

유학생 시장은 반값등록금 정책 등을 피해갈 대학들의 유일한 탈출구다. 일반 학생은 정부의 강력한 등록금 인상 억제책에 묶여 있지만 유학생은 그렇지 않다. 미국 등 해외 대학들도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현격하게 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어 사회적 비판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될수록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으며 불법체류자 증가는 피하기 어려워진다.

평가를 위해 유학생 머리수만 쫓는 대학도 문제다. 올해 초 외국인 유학생

의 출석부를 조작해 불법 취업을 도운 경기권 두 대학의 교직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141명 외국인 유학생(두 대학 합계)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취업기간 중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다.

광주의 한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대학이 나서 불법 취업을 알선하다 적발됐다. 같은 시기 경상대에선 베트남 유학생 30명이 불법 취업을 위해 학교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중 불법체류율(20% 이상)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심사를 통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거나 비자 심사를 강화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사평가에선 인증을 통과한 대학이 134개교, 비자 제한 대학이 24개교였다. 이 인증을 받으면 비자 발급 과정이 간소화되는 등 유학생 유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의 재정요건이 강화하고 대학부설 여학원의 기준 등도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대학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이 유학생의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학교가 마음먹고 출석부를 조작한다면 법무부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가톨릭대·인하대 등 '방학 교직원' 채용

이달 중 서류접수 마감

전국 주요 대학들이 하계 방학 중 교직원을 채용한다.

7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가톨릭대·충남대 등 5개 대학이 8월 중 공개채용 입사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은 상시 모집을 진행 중이다.

가톨릭대는 12일까지 일반행정 정규직원 00명을 모집한다. 대학교 행정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임용일은 9월 1일 예정이다.

충남대는 8일까지 대학상용직(전문행정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기획평가과, 국제교류과, 인재개발원 3곳으로 모두 박사학위 취득 후 유관분야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과의 경우 어학성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통대는 산학협력단 행정직을 채용한다. 서류접수마감은 8일까지다. 채용 분야 업무는 연구비 관리 및 과제

관리 등으로 임용일은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백석대학교는 전산정보원과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정규직 사무직원을 모집한다. 기독교인은 우대하고, 서류모집은 사무직 임용지원서 입력 후 12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NCS 기반으로 신규 직원 12명(장애, 보호 특별전형 포함)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교육행정, 전산, 심사평가행정, 운전, 조경 등 8개 부문이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임용일은 내달 16일 예정이다.

이밖에 인하대는 학과 및 행정실 등 행정부서에서 근무할 조교와 사무보조원을, 성신여자대학교는 K-MOOC 신규강좌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할 계약직 직원을 상시모집 중이다. /한용수 기자

국방부-중기부, 장병 취·창업 '맞손'

중소벤처기업 지원·장병 취업 MOU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 2배이상 확대

국방부와 중소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 국방 분야 중소기업 성장과 장병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 분야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넘어야 할 현실의 벽도 많다는 게 업계의 반응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부처는 지난 5월부터 업무협약을 추진해 왔다.

정 장관은 "국방 분야 무기체계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중소기업 참여 여건 조성 및 기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결하도록 취업교육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서 군수품 국산화가 개발 지원 확대 협력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라며 "이를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군수품의 국산화율과 중소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 기술과 제품이 전체 조달시장에서 네 번째로 큰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반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수품의 국산화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해외도입 부품의 구매정보 제공 등 개발·구매과정의 국산화가 개발 수요 발굴을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우수 군수품 제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시 우대해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공장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한 지능형 공장을 뜻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2030 직장인 절반 "인생 이모작 ing"

88% "다른직업 준비 의향 있어"

2030직장인 2명 중 1명은 현재와 다른 일을 준비하는 이른바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사람이인 2030 직장인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현재 직업 또는 직무가 아닌 다른 직업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5.6%는 '현재 인생 이모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4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종자돈 모으기'(31.8%), '외국어 공부'(27.4%), '관심 업종 실무 경험 쌓기'(26.9%), '전문 기술 습득'(23.3%), '관련 교육과정 이수'(19.3%), '대외 인맥 넓히기'(13.9%) 등이 있었다.

이들이 인생 이모작을 하려는 이유

(복수응답)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해서'(50.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42.7%),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40.3%), '노후 대비를 위해서'(32.5%), '정년 없이 일하고 싶어서'(27.6%),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있어서'(22.7%) 등이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연령대는 '30대'(34.2%)가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40대'(31.3%)가 뒤를 이었으며, '50대'(18.6%), '20대'(10.8%) 순이었다.

반면, 전통적인 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이라는 응답은 5.1%로 가장 적어 비교적 이른 연령대부터 직무나 직업을 바꾸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전체 응답자들은 새로운 일을 찾을 때 고려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 '적성에 맞고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일'(6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용수 기자

시원스쿨 "베트남어, 원어민에게 배우세요"

시원스쿨은 9년간의 강의 경험으로 다져진 베트남 원어민 강사의 베트남어 발음 강의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은 여행지로 각광받는 등 과거에 비해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지만 베트남어는 여전히 생소한 언어다. 특히 6개 성조가 존재하는 만큼 까다로운 언어여서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학습했다 라도 막상 현지에서는 원어민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원스쿨 베트남어 분석에 따르면, 같은 글자라도 성조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로 바뀌고, 학습 시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는 표현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서 사용되는 올바른 발음과 표현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원스쿨 베트남어는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통해 발음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발음해야 하는지와 발음할 때 입모양,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원어민 강사의 발음, 성조, 말하는 속도를 익혀 현지에서 바로 통하는 발음을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원어민과의 간접 대화 체험 트레이닝으로 실제 현지인과의 베트남어 회화 상황에 적응하는 연습도 할 수 있다.

시원스쿨 베트남어 관계자는 "원어민의 발음과 성조 등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MP3 음원을 특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강의 노트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세계비교문학협 집행위원회에 김영민 동국대 교수 선임

동국대는 영어영문학부 김영민 교수(사진)가 지난 7월29일~8월2일까지 마카오대학교(University of Macau)에서 열린 2019년 제22차 세계비교문학협회 세계대회에서 집행위원회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세계비교문학협회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각국 비교문학협회가 연합해 컨소시엄을 구축한 UN과 같은 성격의 비교문학공동연합체다.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 3년이다. /한용수 기자

